

발표요약문

(특별강연)

임기택, 국제해사기구(IMO) 명예총장

신해양시대를 맞아 - 한국의 역할

1. 해양의 중요성

해양은 지구 표면의 72% 이상을 차지하며,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산소의 절반을 생산하고, 인류 활동으로 발생하는 열의 90% 이상을 흡수하고 있습니다. 또한 수산업을 통해 고품질 단백질을 공급하고, 크루즈·레저 산업 등 다양한 휴식처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.

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산호초의 90% 이상이 소실될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양은 매년 1.5조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, 2030년에는 3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2. 세계 해상물동량 및 국제해운선대

2024년 해상물동량은 12,629백만 톤으로 전년 대비 2.2% 증가하였습니다. 그러나 흑해와 홍해의 지정학적 긴장은 수에즈 운하 운항을 제한하는 등 해상물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

세계 선대 규모는 2005년 대비 약 2.5배 성장했으며, 특히 중국, 한국, 일본이 조선산업의 95% 이상을 차지하며 글로벌 해운·조선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. 또한 상하이, 싱가포르, Ningbo-Zhoushan, 부산 등 주요 항만은 글로벌 물류 흐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

3. IMO와 국제적 도전과제

국제해사기구(IMO)는 선박 안전과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 규범을 제정·개정하는 UN 전문기구입니다. 현재 IMO가 직면한 핵심 과제는 **탈탄소화와 디지털화**입니다. 2023년 IMO는 2050년경까지 Net-Zero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전략을 채택했습니다. 2040년까지 최소 70~80%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구체적인 단계 목표도 설정하였습니다.

또한 자율운항선박(MASS) Code 제정, E-Navigation, 해사 사이버보안 지침 마련 등 디지털 전환 역시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.

4. 북극항로 시대와 부울경의 역할

기후변화로 북동항로(NSR)는 2030년대 중반이면 연중 7-9개월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의 항로는 최대 10-15일 단축되어 연료비와 탄소배출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.

이 과정에서 부산·울산·경남(부울경)의 항만은 세계공급망의 병참기지로서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5. 한국의 역할: 글로벌 협력과 협업

세계기후변화대응은 1개국가 또는 지역에 국한되는 과제가 아님 범지구적인 인류공영의 과제입니다.

신해양시대를 맞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해양과 Blue Economy를 위해 대한민국은 모든 국가들과 함께 협력과 협업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